

아동의 주거 및 아동실에 대한 의식

-시설복지적 측면에서 본 아동공간에 관한 연구(Ⅱ) -

A study on the residential Consciousness of children and the Consciousness of their own room

-A study on Children's Space from a Welfare Viewpoint(Ⅱ)-

박 인 전

Park, In Jeon

안 지 연

An, Ji Yeon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erve as the basic data for the guidance and the effective preparation of children's room and the children's residing environment in addition, by grasping generally the residential consciousness of children and the consciousness of children's room.

For these purposes, th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214 5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living in Taegu.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ile, anova, duncan's test,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

1. It was found that many children wanted to have their own room because they are quietly able to study without being disturbed in their study.
And it is shown that they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their own room.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nsciousness of their own room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mother's age, father's job, the numbers of room.
3. The residential consciousness of children was variable according to father's age, mother's employment, the order of birth, income, the conditions of housing possession, parent's educational level, housing style, the numbers of room.
4. The mother's employment, father's educational level, the conditions of housing possession, the numbers of room, family number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their own room.
5. Among the domains of the evaluation of their own room, the degree of width and the degree of convenience were variable to have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of their own room

* 정희원, 영남대 아동학과 강사, 문학박사

** 정희원, (재)지역발전연구소 연구원

I. 서론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환경의 중요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그것이 자연 환경이건 인공적인 환경이건 간에 개인과 조화된 환경은 개인의 성장 발육, 건강 촉진 및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펴 보면, 우리는 아주 많은 시간을 내부 공간에서 보내고 있어 실내환경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스코트랜드의 글래스고우 교육위원회에서 행한 주거의 크기와 아동의 신장, 체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방의 수가 적은 주택의 아동일수록 신체의 발육이 늦어진다고 보고하고 있고, 아동의 지능, 학업과 주거조건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서 독일의 Buseman은 국민학교 학생과 학업성적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가족 1인당의 방수가 적은 학생일수록 성적이 나쁘고, 어린이의 공부에 적합한 주거공간은 방의 수가 3-4개이며 가족수가 5인이내가 적당하다고 한다(강진수, 1982, 재인용).

또한 주택과 아동의 인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小林重順은 주택이란 어린이의 무의식과 의식이 연관성에 관계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관계함으로써 적용된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주택에 대해 지니는 형태 감정에 의해 아동의 정서발달을 돕는다고 하였다(오영아, 1984, 재인용) 따라서 주거환경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신체발달, 정서발달, 성격발달의 제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필요와 욕구, 흥미, 발달단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이들을 위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나 1960년대 후반부터의 경제성장에

로 인한 생활 수준의 향상은 어린이의 주거환경에도 차츰 관심을 갖게 하였다. 특히, 어린이는 성장함에 따라 자기만의 세계와 비밀을 갖으며 자아의 형성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며 자기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사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어린이에게 매력적인 방을 꾸며 주는 것은 어린이로 하여금 자아(ego)를 세우도록 해주고 환경을 통해 그들에게 특질을 발견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 또 이러한 일로 인해 좋은 취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도 하고 자신의 방 속에서 가정을 느끼게 하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된다.

아동은 주택을 통하여 생활공간의 기능을 익히고 공간의 질서를 몸에 익힘으로서 신체적으로 적용된 행동을 가능하게 하며, 가족전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공간은 외부에서의 소외감을 보상하며 친밀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안은숙, 1987)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학동기 아동을 대상으로 I편의 아동실의 주거환경 실태 및 이용실태에 이에 아동의 어린이 방에 대한 의식과 전반적인 주거의식, 자기방에 대한 평가를 알아봄으로써 아동실과 그 밖의 아동의 주거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지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표집대상 및 자료수집은 I편을 참조하기 바라며 측정도구 및 자료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관한 문항과 주거의 특성에 관한 문항, 아동실에 대한 아동의 주거의식에 관한 문항, 아동의 주거에 관한 전반적인 의식에 관한 문항, 아동의 자기방에 대한 평

가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주거특성을 포함한 것으로서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내용은 I편과 동일하다.

둘째, 아동실에 대한 아동의 주거의식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아동실을 원할 경우 그 이유, 자기방에 대한 요구사항, 자기방에 만족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아동의 주거의식에 관한 문항은 총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아동의 자기방에 대한 평가에 관한 문항으로 넓은 정도, 깨끗한 정도, 조용한 정도를 비롯한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우선,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주로 t-test, x²검증, ANOVA, Duncan's Test,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아동실에 대한 아동의 주거의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는 I편의 (표 1)을 참고하기 바란다.

(1) 아동실에 대한 아동의 주거의식의 일반적 경향

아동들의 아동실에 대한 주거의식이 어떤 성향을 보이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 보면 (표1-1)과 같다.

<표1-1>에서 나타낸 바와같이 아동실을 원하는 경우 그 이유를 알아 본 결과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조용히 공부할 수 있으므로”가 가장 높은 비율(51.0%)을 차지하고 있다.

<표 1-1> 아동실에 대한 아동의 주거의식의 일반적 경향

변 수	집 단	빈도(명)	백분율 (%)
아동실을 원하는 이유	다른 사람의 방해없이 조용히 공부할 수 있으므로	104	51.0
	자기방을 스스로 장식할 수 있으므로	65	31.9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의 간섭을 받지 않으므로	30	14.7
	기 타	5	2.5
	계	204	100.0
자기방에 대한 요구 사항	없다.	37	17.5
	가구 및 장비	48	22.7
	독방 사용	44	20.9
	학습용가구	38	18.0
	방장식허용	16	7.6
	방을 넓이는 것	25	11.8
	기 타	3	1.4
계	211	100.0	
자기방에 대한 만족도	아주 만족한다	38	17.9
	만족한다	57	26.9
	보통이다	82	38.7
	불만족	30	14.2
	아주 불만족	5	2.4
계	212	100.0	

주 : 변인에 따라 빈도 합계 차이가 있는 경우는 결측값(missing data)에 의한 것임.

자기방에 대한 요구사항은 “가구 및 장비”(22.7%), “독방사용”(20.9%), “학습용 가구”(18.0%)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과 관련된 가구 및 용품과 생활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방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아주 만족한다”와 “만족한다”의 경우가 44.8%이며 “보통이다”의 경우가 38.7%로서 자기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실에 대한 아동의 주거의식

<표 1-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실에 대한 아동의 주거의식

변인	구분		빈도(%)	다른사람의 방해없이 조용히 공부할 수 있으므로	자기방을 스스로 장식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의 간섭을 받지 않으므로	기타	비고			
	구분	빈도(%)									
아동실을 원하는 이유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34(19.2)	16(47.1)	9(26.5)	6(17.6)	3(8.8)	$x^2 = 14.32796^*$ df = 6			
		고졸 대졸이상	95(53.7) 48(27.1)	56(58.9) 19(39.6)	27(28.4) 21(43.8)	12(12.6) 7(14.6)	0(0.0) 1(2.1)				
	어머니 연령	37세미만	82(41.2)	50(61.0)	24(29.3)	6(7.3)	2(2.4)	$x^2 = 8.06701^*$ df = 3			
		38세이상	35(59.8)	54(44.3)	41(33.6)	24(19.7)	3(2.5)				
자기방에 대한 요구 사항	어머니 연령	37세미만	82(38.9)	12(14.6)	27(32.9)	19(23.2)	12(14.6)	3(3.7)	7(8.5)	2(2.4)	$x^2=12.88721^*$ df = 6
		38세이상	129(61.1)	25(19.4)	21(16.3)	25(19.4)	26(20.2)	12(10.1)	18(14.0)	1(0.8)	
		소 계	211(100.0)								
	어머니 직업 유무	무유	124(58.8)	25(20.2)	28(22.6)	20(16.1)	21(16.9)	16(12.9)	12(9.7)	2(1.6)	$x^2=17.09648^{**}$ df = 6
		38세이상	87(41.2)	12(13.8)	20(23.0)	24(27.6)	17(19.5)	0(0.0)	13(14.9)	1(1.1)	
	방의수	2개이하	95(54.0)	18(18.9)	27(28.4)	27(28.4)	12(12.6)	3(18.6)	8(8.4)		$x^2=25.49028^{**}$ df = 12
		3개	73(34.6)	12(16.4)	14(19.2)	10(13.7)	15(20.5)	9(35.8)	14(19.2)	1(1.4)	
		4개이상	43(20.4)	7(16.3)	7(16.3)	7(16.0)	11(25.6)	0(40.0)	3(7.0)	2(4.7)	
		소 계	211(100.0)								
	자기방에 대한 만족도	빈 수	집 단	빈 도(명)		평 균	F 값				
		성 별	남 여	116 96		2.43 2.72	4.2699*				

주: 변인에 따라 빈도 합계 차이가 있는 경우는 결측값(missing data)에 의한 것임. **p<.01 *p<.05

아동실에 대한 아동의 주거의식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x^2 -test와 ANOVA를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아동실을 원하는 경우 그 이유는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각각 5%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가 인정되었다. 특히,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중졸이하이거나 고졸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방해없이 조용히 공부할 수 있으므로”가 높은 비율(각각 47.1%, 58.9%)을 차지하였으나, 대졸이상인 경우에는 “자기방을 스스로 장식할 수 있으므로”(43.8%), “다른 사람의 방해없이 조용히 공부할 수 있으므로”(39.6%)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대부분의 아동이 자기방을 가지고 있

타인의 방해를 그다지 받지 않고 있다고 보아 지며 더 나아가 자기방을 자기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또한 자기의 취향대로 꾸미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른 두집단의 아동에 비해 더 강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자기방에 대한 요구사항은 어머니의 직업유무(p<.01), 방수(p<.01), 어머니의 연령(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방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방에 대한 요구사항이 “가구 및 장비” “독방사용”이 각각 2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방수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학습용 가구”(25.6%)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방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p.05)를 보여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주거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

(1) 아동의 주거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의 일반적 경향

아동의 주거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 보면 <표2-1>과 같다.

<표 2-1> 아동의 주거 의식의 일반적 경향

변 수	집 단	빈도(명)	백분율(%)
자연피해로부터의 보호	예	194	90.7
	아니오	20	9.3
	계	214	100.0
생명과 재산의 보호	예	198	92.5
	아니오	16	7.5
	계	214	100.0
쾌적한 곳	예	177	82.7
	아니오	37	17.3
	계	214	100.0
조용한 곳	예	126	58.4
	아니오	89	41.6
	계	214	100.0
편안한 휴식처	예	194	90.7
	아니오	20	9.3
	계	214	100.0
적당한 크기	예	175	81.8
	아니오	39	18.2
	계	214	100.0
아늑하고 평화로운 곳	예	171	79.9
	아니오	43	20.1
	계	214	100.0
능률적인 가사처리	예	143	66.8
	아니오	71	33.2
	계	214	100.0
정답게 지내고 서로 도움	예	197	92.1
	아니오	17	7.9
	계	214	100.0
자유로운 사생활 유지	예	129	60.3
	아니오	85	39.7
	계	214	100.0
웃어른공경 및 교훈의 장소	예	127	59.3
	아니오	87	40.7
	계	214	100.0
대화와 충고의 장소	예	165	77.1
	아니오	49	22.9
	계	214	100.0
내일을 위한 활력의 장소	예	158	73.8
	아니오	56	26.2
	계	214	100.0
생활처	예	186	86.9
	아니오	28	13.1
	계	214	100.0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은 자연 피해를 막아 주는 곳”이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피로하였던 하루를 쉬는 편안한 휴식처”이며 “가족이 정답게 지내며 서로 도와가며 사는 곳”이다라는 문항에 있어서 90%이상의 아동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집은 편리한 구조로 능률적인 가사처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각 개인이 사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잘못된 점을 가르쳐 주는 곳”이라는 문항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응한 아동의 비율이 (각각 33.2%, 39.7%, 40.7%) 다른 문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집은 웃어른을 공경하며 잘못된 점을 가르쳐 주는 곳이다”라는 항목의 경우,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59.3%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현재 우리 사회의 핵가족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한다.

아동의 자기방에 대한 만족도를 만족집단(95명)과 불만족 집단(35명)으로 나누어 주거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집은 쾌적한 곳” “집은 조용한 곳” “집은 가사처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각각 $p < .05$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만족집단의 의식이 보다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주거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

아동이 주거에 관한 전반적인 의식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를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집은 자연 피해를 막아 주는 곳이다”라는 문항은 아버지의 연령($p < .05$)과 어머니의 직업유무($p < .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집은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곳이다”라는 문항에 있어서는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미한($p < .01$) 차이를 보여 출생순위가 만

<표 2-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아동의 주거의식

변인	구분		빈도 (%)	그렇다	그렇지않다	비 고
	40세 미만	41세 이상				
자연피해 받을 주는곳	아버지 연령	40세 미만	80(37.4)	77(96.3)	3(3.8)	$\chi^2 = 4.72192^*$ df = 1
		41세 이상	134(62.6)	117(87.3)	17(12.7)	
	소 계	214(100.0)				
가정의 생명 재산을 보호 주는곳	어머니 직업 유무	무 유	125(58.4)	118(94.4)	7(5.6)	$\chi^2 = 4.77757^*$ df = 1
		소 계	89(41.6)	76(85.4)	13(14.6)	
	소 계	214(100.0)				
가족의 과 재 보 호 해 주는곳	출생 순위	막 내 중 외	80(37.4)	75(93.8)	5(6.3)	$\chi^2 = 12.37880^{**}$ df = 3
		간 중 외	93(43.5)	88(94.6)	5(5.4)	
	소 계	29(13.6)	27(93.1)	2(6.9)		
조용한 곳	총수입	90만원이하	61(43.9)	38(62.3)	23(37.7)	$\chi^2 = 6.09630^*$ df = 2
		91-120	44(31.7)	18(40.9)	26(59.1)	
	121만원이상	34(24.5)	22(64.7)	12(35.3)		
편안한 휴식처	어머니 직업 유무	무 유	125(58.4)	118(94.4)	7(5.6)	$\chi^2 = 4.97757^*$ df = 1
		소 계	89(41.6)	76(85.4)	13(14.6)	
	소 계	214(100.0)				
아늑하고 평화로운 곳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38(20.5)	24(63.5)	14(36.8)	$\chi^2 = 10.28328^{**}$ df = 2
		고 졸 대졸이상	98(53.0)	81(82.7)	17(17.3)	
	소 계	49(26.5)	44(89.8)	5(10.2)		
편리한 구조로 능률적인 가사처리 가 이루어 지는 곳	주택 유 상 태	자 가	106(50.6)	102(96.2)	4(3.8)	$\chi^2 = 9.49349^{**}$ df = 2
		집 전체전세·월세	50(23.8)	44(88.0)	6(12.0)	
	집 일부전세·월세	54(25.7)	44(81.5)	10(18.5)		
가족이 정답게 지내며 도와가며 사는 곳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38(20.5)	18(47.4)	20(52.6)	$\chi^2 = 11.07387^{**}$ df = 2
		고 졸 대졸이상	98(53.0)	70(71.4)	28(28.6)	
	소 계	49(26.5)	39(79.6)	10(20.4)		
가정 정답게 지내며 도와가며 사는 곳	출생 순위	막 내 중 외	80(37.4)	71(88.8)	9(11.3)	$\chi^2 = 10.46632^{**}$ df = 3
		간 중 외	93(43.5)	91(97.8)	2(2.2)	
	소 계	29(13.6)	26(89.7)	3(10.3)		
사생활을 자유롭게 할수있는 곳	총수입	90만원이하	61(43.9)	53(86.9)	8(13.1)	$\chi^2 = 6.08423^*$ df = 2
		91-120	44(31.7)	44(100.0)	0(0.0)	
	121만원이상	34(24.5)	31(91.2)	3(8.8)		
가족간의 유익한 대화 충고 받을 수 있는 곳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38(20.5)	17(44.7)	21(55.3)	$\chi^2 = 2.42368^*$ df = 2
		고 졸 대졸이상	98(53.0)	60(61.2)	38(38.8)	
	소 계	49(26.5)	35(71.4)	14(28.6)		
가족간의 유익한 대화 충고 받을 수 있는 곳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73(39.2)	35(47.9)	38(52.1)	$\chi^2 = 13.61592^{***}$ df = 2
		고 졸 대졸이상	87(46.8)	55(63.2)	32(36.8)	
	소 계	26(14.0)	23(88.5)	3(11.5)		
가족간의 유익한 대화 충고 받을 수 있는 곳	총수입	90만원이하	61(43.9)	41(67.2)	20(32.8)	$\chi^2 = 7.31357^*$ df = 2
		91-120	44(31.7)	35(79.5)	9(20.5)	
	121만원이상	34(24.5)	31(91.2)	3(8.8)		
주택 소 상 태	주택 유 형	자 가	106(50.5)	81(76.4)	25(23.6)	$\chi^2 = 9.75560^{**}$ df = 2
		집 전체전세·월세	50(23.8)	26(52.0)	24(48.0)	
	집 일부전세·월세	54(25.7)	34(63.0)	20(37.0)		
방외수	방외수	단 독	119(55.6)	75(63.0)	44(37.0)	$\chi^2 = 7.26506^*$ df = 2
		아 파 트 먼트	36(16.8)	31(86.1)	5(13.9)	
	연 립	59(27.6)	37(62.7)	22(37.3)		
방외수	방외수	2개이하	97(45.3)	51(52.6)	46(47.4)	$\chi^2 = 16.47326^{***}$ df = 2
		3개	74(34.6)	57(77.0)	17(23.0)	
	4개 이상	43(20.1)	35(81.4)	8(18.6)		
방외수	방외수	2개이하	97(45.3)	51(52.6)	46(47.4)	$\chi^2 = 16.47326^{***}$ df = 2
		3개	74(34.6)	57(77.0)	17(23.0)	
	4개 이상	43(20.1)	35(81.4)	8(18.6)		

注 : 변인에 따라 함께 차이가 있는 경우는 결측값(missing data)에 의한 것임.

*** p<.001 ** p<.01 * p<.05

이이거나 막내 혹은 중간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각각 93.8%, 94.6%, 93.1%)의 아동이 “그렇다”라고 대답한 반면에 외동아이인 경우에는 66.7%의 아동만이 “그렇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집은 조용한 곳이다”라는 문항은 총수입($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집은 피로하였던 하루를 쉬는 편안한 휴식처이다”라는 문항은 어머니의 직업유무($p<.01$)와 주택소유 상태($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의 아동들이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의 아동들보다 집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 주는 편안한 휴식처로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학동기아동은 자기 혼자서도 지낼 수 있다는 기대에 자칫 방임 상태에 놓여질 수 있으며 모의 취업에 대해 자기의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 선행연구결과(김양희외, 1992) 모부재시 두렵거나 심심하다는 학동기 아동이 63.6%나 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주택 소유상태가 집일부 전세 혹은 월세인 경우(18.5%)가 자가인 경우(3.8%)보다 집을 편안한 휴식처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이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같은 경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사료된다.

“집은 아늑하고 평화스러운 곳”이라는 문항은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에서 각각 1% 수준으로 유의한 차가 안정되었다. 즉, 아버지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아동일수록 집은 아늑하고 평화스러운 곳이라고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은 편리한 구조로 능률적인 가사처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문항은 방수($p<.001$), 아버지의 학력($p<.01$), 주택의 소유상태($p<.01$), 주택 유형($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79.8%)가 중졸이하인 경우(47.4%)보다 집이란 편리한 구조로 능률적인 가사처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소유 상태가 자가인 경우(76.4%)가 집전체 전세 혹은 월세(52.0%)나 집 일부 전세 혹은 월세(63.0%) 그리고 주택유형이 아파트인 경우(86.1%)가 단독주택(63.0%)이나 연립주택(62.7%)보다, 그리고 방수가 4개이상인 경우(81.4%)가 2개이하인 경우(52.6%)보다 “집은 편리한 구조로 능률적인 가사처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은 가족이 정답게 지내며 서로 도와가며 사는 곳이다”라는 문항은 출생순위($p<.01$), 총수입($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어린이가 안정감을 가지고 건전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수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빈곤한 가계는 어린이의 정상적 발육을 저해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선행연구결과(이소희, 1989)와 일치한다. 그리고 출생순위가 외동인 경우(75.0%)가 맏이(88.8%), 막내(97.8%), 중간(89.7)인 경우보다 집이란 가족이 정답게 지내며 서로 도와가며 사는 곳이라고 지각하는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나 외동아이들이 다른 출생순위 아동들과는 집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다름을 알 수 있다.

“집은 각 개인의 사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문항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학력($p<.001$)과 아버지의 학력($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집이란 각 개인이 사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같은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집은 가족간의 유익한 대화와 충고로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라는 문항은 총수입에서만 유의미한 차이($p<.05$)를 보여 가정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집이란 가족간의 유익한 대화와 충고로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기방에 대한 평가

(1) 자기방에 대한 평가의 일반적 경향

아동의 자기방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 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자기방에 대한 평가의 일반적 경향

영역	구분	평균(X)	표준편차(SD)
넓은 정도	넓은 정도	3.14	.88
	끼퐁한 정도	3.61	.99
	조용한 정도	3.55	1.07
	따뜻한 정도	4.00	1.03
	화려한 정도	2.99	.09
변화성	변화성	2.92	.99
	벽색채가 밝은 정도	3.79	1.04
편리한 정도	편리한 정도	3.60	1.11
	전체	3.45	.59

<표 3-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따뜻함에 대한 평가점수가 가장 높으며 화려함이나 변화성에 대한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보통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기방에 대한 평가

아동의 자기방에 대한 평가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 <표 3-2>와 같다.

<표 3-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기방에 대한 평가

	변수	집단	빈도(명)	평균	F 값	Duncan's test
넓은 정도	어머니 직업유무	무유	125	3.26	6.0071**	
		유유	88	2.97		
조용한 정도	아버지학력	중졸이하	37	3.05	6.3483**	AA B B
		고졸	98	3.74		
		대졸이상	49	3.65		
	주택 소유 상태	자가	106	3.77	4.8479**	AA B
		집전체전세·월세	50	3.46		
		집일부전세·월세	53	3.25		
방의 수	2개이하	96	3.32	4.4344**	AA BB	
	3개	74	3.80			
	4개이상	43	3.65			
변화성	어머니 직업유무	무유	125	3.03	3.8770*	
		유유	88	2.76		
편리한 정도	가족수	4명이하	85	3.39	3.5458*	AA BB
		5명	68	3.85		
		6명이상	59	3.66		
	방의 수	2개이하	96	3.38	4.0508**	AA BB
		3개	74	3.69		
		4개이상	43	3.93		

주: 변인에 따라 빈도 합계 차이가 있는 경우는 결측값(missing data)에 의한 것임.
**p<.01 *p<.05 Duncan's test :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차이가 있음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넓은 정도에 대한 평가는 어머니의 직업유무에서만 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어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보다 자기방에 대해 더 넓다고 생각하였다.

조용한 정도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학력, 주택 소유 상태, 방수에서 각각 1%수준으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즉,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경우가 고졸이나 대졸이상인 경우보다 더 좁다고 지각하였으며 주택소유상태가 자가인 경우가 집일부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보다, 또한 방수가 3개인 경우가 2개이하인 경우보다 자기방에 대해 더 넓다고 지각하였다.

변화성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직업유무에서만 유의한 차이(p<.05)를 보여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자기방에 대해 더 변화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무직인 어머니에 비해 아동방에 대한 세심한 배려 및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적기 때문으로

로 사료된다.

편리한 정도에 있어서는 방수(p<.01) 및 가족수(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가족수가 5명인 경우가 4명이하인 경우보다 자기 방의 가구사용 등에 있어서 더 편리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방수가 4개이상인 경우가 2개이하인 경우보다 더 편리하다고 평가하였다.

4. 자기방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아동의 자기방에 대한 평가에 따른 자기방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 <표 4-1>과 같다.

<표 4-1> 아동의 자기방에 대한 평가에 따른 자기방에 대한 만족도

독립변인(N)		넓은 정도		깨끗한 정도		조용한 정도	
		높음(38)	낮음(60)	높음(26)	낮음(113)	높음(37)	낮음(116)
자기방에 대한 만족도	X	3.18	2.18	2.96	2.46	2.84	2.44
	S.D.	.96	1.11	1.11	.98	1.04	1.00
	t	4.58***		2.29*		2.09*	
독립변인(N)		따뜻한 정도		화려한 정도		편리한 정도	
		높음(14)	낮음(148)	높음(51)	낮음(53)	높음(34)	낮음(11)
자기방에 대한 만족도	X	3.07	2.47	2.96	2.15	3.35	2.32
	S.D.	1.14	1.01	1.03	1.05	.98	.99
	t	2.09*		3.96*		5.36***	

*** p<.001 * p<.05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방에 대한 평가항목 중 넓은 정도(p<.001), 깨끗한 정도(p<.05), 조용한 정도(p<.05), 따뜻한 정도(p<.05), 화려한 정도(p<.001), 편리한 정도(p<.001)에 있어서 높게 평가한 집단이 낮게 평가한 집단보다 자기방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가 높은 것은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조사대상자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기방에 대한 평가가 자기방에 대한 만족도

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자기방에 대한 평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기방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할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자기방에 대한 평가와 자기방에 대한 만족도

독립변인	종속변인	자기방에 대한 만족도
넓은 정도		.31044(.27068)***
편리한 정도		.24407(.26590)***
회귀상수		1.58734
Adjust R ²		.18843
F		25.37929***

*** p<.001

자기방에 대한 평가가 자기방에 대한 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를 약 19%로 나타났다. 자기방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편리한 정도, 넓은 정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자기방에 대해 넓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편리하다고 생각할수록 자기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아동의 전반적인 주거의식과 어린이방에 대한 의식 및 자기방에 대한 평가를 알아봄으로써 아동실과 그밖의 아동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실을 원하는 경우 그 이유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조용히 공부할 수 있으므로”였다. 그리고 자기방에 대한 요구사항을 알아 본결과 아동들

은 학업과 관련된 가구 및 용품과 생활용품을 수납하는 공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기방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자기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이거나 고졸인 경우에는 아동실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사람의 방해없이 조용히 공부할 수 있으므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대졸이상인 경우에는 “자기방을 스스로 장식할 수 있으므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이 “다른 사람의 방해없이 조용히 공부할 수 있으므로”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수가 2개이하인 경우에는 자기방에 대한 요구사항이 “가구 및 장비”와 “독방사용”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방수가 4개이상인 경우에는 “학습용 가구”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방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자기방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출생순위가 맏이이거나 막내 혹은 중간인 아동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집은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고 지각한 반면, 외동아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동이 33.3%나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무직인 아동이 직업을 가진 경우의 아동보다 집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 주는 편안한 휴식처라고 더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주택소유상태가 집일부 전세 혹은 월세인 경우가 자가인 경우보다 집을 편안한 휴식처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집은 아늑하고 평화스러운 곳이라고 더 많이 지각하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중졸이하인 경우보다 집이란 편리한 구조로 능률적인 가사처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더 많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택소유 상태나 주택유형, 방수와 같은 주거특성에 따라 편리한 구조로 능률적인 가사처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고 지각하고 있었다.

출생순위가 외동인 경우가 맏이, 막내, 중간인 경우보다 집이란 가족이 정답게 지내며 서로 도와가며 사는 곳이라고 지각하는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집이란 각 개인의 사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집이란 가족간의 유익한 대화와 충고로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의 아동이 없는 경우의 아동보다 자기방에 대해 더 넓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경우가 고졸이나 대졸이상인 경우보다 더 좁다고 지각하였다. 주택소유 상태가 자가인 경우가 집일부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보다 또한 방수가 3개인 경우가 2개이하인 경우보다 자기방에 대해 더 넓다고 지각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자기방에 대해 더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가족수가 5명인 경우가 4명이하인 경우보다, 또한 방수가 4개이상인 경우가 2개이하인 경우보다 자기방에 대해 더 편리하다고 평가하였다.

5. 자기방에 대한 평가의 변인 중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넓은 정도와 편리한 정도로서 아동이 자기방에 대해 넓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편리하다고 생각할수록 자기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동의 전반적인 주거 의식 및 아동실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아동실의 주인이 아동임을 인식하고 그 아동의 성장과정 및 아동의 관심과 흥미 분야를 고려하여 아동속에 잠재된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실을 마련해 준다면 진정한 아동의 참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 나아가 모든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인 영유아기부터 건전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아동에게 있어 가정은 최초의 환경으로 만약 주거조건이 적합하지 못하다면 아동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행동기준을 배우지 못하며 올바른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란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공사단체가 협력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 실천할 뿐 아니라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며 도와주는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만약 아동들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도 건강하고 밝게 자라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에 유익한 일꾼으로도 성장하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아동복지는 아동들이 자라나야 기시킬 사회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이에 아동복지의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부모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올바른 자녀양육을 할 수 있도록 부모역할 교육을 사회교육기관을 통해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심신의 건강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시설, 그것을 지원하는 기관, 즉 부모들이 가정생활과 아동양육에 관한 여러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상담기관 등을 설치하고 나아가 부모학교, 어머니회, PTA,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인사 및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어린이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함께 걱정하고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장진수, “어린이 방에 대한 기대와 실태”, 경북대 교육대학원, 1982.
- 김양희 외 5인,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의 가족관계와 정책적 제언”, 대한가정학회지, 30권, 3호, p.285-305, 1992.
- 김영희, “주거환경이 아동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대학원, 1985.
- 안은숙, “아동방의 놀이공간 디자인을 위한 연구”, 숙명여대 산업대학원, 1987.
- 오영아, “국민학교 어린이의 주거환경에 관한 반응조사 연구”, 연세대 대학원, 1984.
- 이소희, 유아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형설출판사, 1989.
- 한말숙, “주거환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주거만족도와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1990.
- Keiser, M. B., *Housing on Environment for a Living*, Macmillian Publishing Co., 1978.
- Meeks, C. B., *Housing*,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 J., 1980.
- Morris, E. W. and M. Winter, *Housing, Family and Society*, John Willy and Sons, New York, 1978.

